

## 개혁주의와 문화

박 희 석\*

21세기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문화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기독교와 문화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본 고에서 문화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한 카이퍼와 스킨더의 견해를 비교 연구하려 한다.

종교와 문화는 어떠한 관계인가? 학자들은 “종교”를 ‘성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일종의 행위, 습관, 신념이나, ‘인간 생존의 근본적인 양태’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sup>1)</sup> 칼빈주의자들은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이다. 한 개인의 종교적 활동의 방향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삶의 다른 양상들을 결정해 준다. 이런 성경적 입장은 기능론적 종교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화가 결코 종교를 형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종교가 문화를 낳고 또한 그 문화의 발전을 좌우한다.<sup>2)</sup>

이러한 견해를 전제하여 칼빈주의자들은 문화와 문화 접촉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견해에 성경적 조망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

\* 신학과 부교수

1) Iring R. Hexham, “Calvinism and Culture: A Historical Perspective,” *Crux* 15 (December 1979), 15.

2) *Ibid.*

하였다. 카이퍼는 그가 프린스턴에서 행한 강의 (Stone Lecture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칼빈주의는 특별한 교회 형태를 만들었으며, 인간생활에서도 전혀 다른 생활 양식을 만들어 주었고, 나아가 다른 생존 방식을 인간 사회에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이상과 관념을 인간의 정신적 세계에 심어 주었다.<sup>3)</sup>

이 주제에 관해 칼빈주의는 인류역사에 인상적 유산을 남겼다. 우리는 이 글에서 카이퍼 (Abraham Kuyper)와 스킬더 (Klaas Schilder)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인 그들은 기독교인의 문화적 책임의 원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즉, 카이퍼가 “문화는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둔 일반 은총의 선물이다”<sup>4)</sup>라고 주장 한 반면, 스킬더는 “참된 문화의 유일한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다”<sup>5)</sup>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 두입장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후 그들의 종합을 시도하려 한다.

카이퍼에게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문화 접촉에 대한 그의 개인적 모범이다. “카이퍼는 칼빈주의에 기초하여 만족할만한 문화의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그러한 이상에 대한 총체적 표현이었다”.<sup>6)</sup> 기독교인의 문화 접촉에 대한 카이퍼의 관점을 우리는 그의 일반 은총론에서 읽을 수 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이유로 인간을 존경

3)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81), 17.

4) Henry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59), 120.

5) John Vriend, “Christ and Culture”, *Torch and Trumpet*, April 1952, p.12.

6) Henry Van Til, 117.

할 뿐만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귀하게 생각한다. 또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는 대 원칙을 수립했는데, 특별 은총은 구원의 역사이며, 일반 은총은 이 세상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진 저주를 경감시키시고, 타락의 진행을 억제하시며, 그 속에서 인간의 생활이 자유롭게 발전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영화롭게 해 드리도록 허용하는 은총이다.<sup>7)</sup>

일반 은총에 대한 그의 이해는 개혁주의 신학과 일치한다. 즉 죄를 억제하는 것과 일반적인 공의를 수호하는 것 두 개 모두 강조되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다양한 작정들 가운데 문화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 마음의 죄악성을 제한하는 것과 인간의 노력을 통한 진보 그리고 역경이나 환난으로 단련시켜 내적으로 풍요롭게 한다. 이것들을 통해 보다 원만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sup>8)</sup>

문화 발전에 관하여 지나친 낙관적 견해를 피하기 위하여 카이퍼는 일반 은총이 미치는 영향의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였다. 즉 일반 은총은 문화의 기능적 면과 지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는 진보와 발전을 할 것이라고 카이퍼는 생각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이 문화의 윤리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카이퍼는 문화가 타락하고 부패할 것으로 보았다.<sup>9)</sup> 그는 이것으로 마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인간들의 점진적 반역과도 일치한다고 하였다. 카이퍼의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다. 만약 이러한 은총이 없었다면, 타락한 인간은 즉각적으로

---

7) Kuyper, 30.

8) Cornelius Van Til, *Common Grace and the Gospel*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2), 17.

9) Henry Van Til, 122.

심판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발전하여 왔다. 그러므로 구속과 관계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선하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 은총이 문화의 기반이 된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이는 어떠한 문화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일반 은총이 문화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계획은 일반 은총을 통하여 성취되었다.<sup>10)</sup>

카이퍼의 독특한 공헌은 일반 은총 그 자체에 대한 교리적 이해가 아니라, “창조된 세계를 발전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가능케 하는 독자적인 역할을 일반 은총에 부여하였다는 사실이다.”<sup>11)</sup>

다음으로, 스킨더 (Schilder)의 저서 「그리스도와 문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려한다. 그의 저서는 다음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취급한다. 즉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스도, 문화명령의 본질, 일반 은총 비판, 이러한 견해들이 함축하고 있는 바를 알아본 것”이다. 우리는 각각의 이러한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킨더의 문화 이해 중심 개념은, 인간을 그의 본래 의도된 창조 명령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하고, 따라서 인간의 창조된 원래의 목적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데서 구원의 이론적 근거를 찾았다.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무는 인간의 처음 상태 즉 원래 주어진 자리로 회복 시키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계와 인간의 삶의 질서를 창조 당시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는 중대한 개혁적 작업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였다. 구체적 생활에서 하나님을

10) *Ibid.*, 118.

11) *Ibid.*, 119.

섬기고,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분이 나타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 자신과 함께 자연 환경 까지도 원래 상태로 회복이 필요하다.<sup>12)</sup>

그리스도는 우리를 존재의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삶의 규범들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오직 인간이 창조된 원래의 상황 즉 창조 질서에 복귀된 곳에서만이 문화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원래의 위치를 다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에게 명령되었으나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진 것들을 다시 깨닫고 완수하도록 하였다. 인간은 창조라는 책 속의 등장 인물임과 동시에 또한 그 책의 독자들이기도 하다. 여기서 인간이 수행해야 할 독특한 의무가 있다.<sup>14)</sup>

스킬더는 창조명령과 문화명령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한다. 문화 접촉에 관한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다섯 가지 명제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가꾸듯이, 인간은 이 세상을 돌보고 이용해야 한다. 둘째, 인간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한다. 셋째,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해야 한다. 인간은 이 땅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 넷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자발적 문화를 발전시킬 능력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스킬더의 이러한 주장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명령 그 자체는 자유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 창조 원리이다. 인간의 형상은 타락 시에 완전 상실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비록 타락하여 이기적 욕망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문화형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계속되고 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을 이루기 위한 아가페적인 인간의 문화활동은 문화적 수

---

12) Klaas Schilder, *Christ and Culture*, trans. G. Van Rongen and W. Helder, (Winnipeg: Premier Printing Ltd., 1977), 32.

13) *Ibid.*, 42.

14) *Ibid.*, 37.

단만을 갈구하는 에로스적인 문화활동으로 변하게 되었다.<sup>15)</sup> 마지막으로 인간은 윤리적 명령에 속박되어 있다. 이것은 조건적이 아닌 절대적인 것이다. 인간은 창조주의 뜻과 권위에 종속되어 있다. 진정한 문화적 순종은 반드시 계시되어진 창조주의 뜻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켜야 한다.<sup>16)</sup>

스킬더는 문화명령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의를 내림으로써 그의 논의를 정리한다. 문화란 하나님에 의해 명령되어진 것이며, 모든 신자들이 온갖 일들을 하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피조물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이러한 것은 피조물 개개의 본성에 맞추어 전체적 환경과 성경의 법칙에 순응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과업의 목적은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보다 유용하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께 보다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가 신자들의 노력이라는 말에 유의해야 한다.<sup>17)</sup> 여기에는 일반 은총이라는 말이 없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재창조하는 것과 세상을 재정복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스킬더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재창조와 재정복의 기반이 된다.<sup>18)</sup> 그래서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일 부분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삽, 망치, 책, 바늘.... 그리고 다른 기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피고 계신다.<sup>19)</sup> 이러한 긍정적 문화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이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문화를 만들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카이퍼가 이해한 일반 은총과 문화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다. 스킬더는 일반 은총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타락 후에 인

---

15) *Ibid.*, 60.

16) *Ibid.*, 41.

17) *Ibid.*, 40.

18) *Ibid.*, 35.

19) *Ibid.*, 85.

간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에 그들의 이론적 근거를 찾았다고 하였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하여 타락 전 상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20)</sup> 모든 은총은 인간에게 유익하다. 하지만 선택권 밖의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은총은 아무 것도 없다. 확실히 스킨더는 “진정한 기독교 철학을 약화시키는 역사와 문화”와 “본성의 빛”과 자연신학에 대한 어떠한 펠라기안적 의미도 배제하려하였다.<sup>21)</sup>

일반 은총에 대한 스킨더의 논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하나님께서 죄를 제한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저주를 제한하는 것을 은총이라면, 축복을 제한하는 것은 심판이라 할 것이다.<sup>22)</sup> 이러한 제한은 “이 세상에 속한 순간적 삶”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인간이 천국에서 더 이상 갖지 않게 될 죄의 가능성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 이전 에덴동산에서 조차 그러한 은총은 제한되었다. 둘째, 스킨더는 카이퍼가 말한 죄에 대한 심판이 타락 후 즉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반드시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sup>23)</sup> 아마 하나님은 불순종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 그의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은총이라기 보다는 창조계의 본질이다. 인간과 사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본질적으로 활동적 요소가 있다. 그것은 문화에 대한 욕구, 즉 에덴동산을 꾸고자하는 욕구다.<sup>24)</sup>

스킨더는 문화 전개과정을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의 결과로 본다.

20) *Ibid.*, 72.

21) Cornelius Van Til, “Klaas Schilder: Heaven—What is it?”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3 (May 1951): 220.

22) Schilder, 45.

23) *Ibid.*, 47.

24) *Ibid.*, 45.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방향성의 차이에 대한 기본 배경을 형성해 준다.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본성이 있다: 서로 다른 두 종류로 빗어질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있다: 두 종류의 방법으로 개발이 가능한 한 지역이 있다: 두 방향을 향하여 노력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층동이 여기 있다.<sup>25)</sup>

수단에 대한 맹목적 집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역행된다. 스킨더는 노동자가 건축 활동에서 연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고 연장 자체만 탐닉한다면 파산할 건축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sup>26)</sup> 바로 이런 상태가 죄 많은 인간들의 문화활동의 본질이다. 스킨더는 일반 은총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중립적 영역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일반 은총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거부하였다. 코넬리우스 반틸은 스킨더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문화란 우리가 불신자들과 공유하게 될 어떠한 토대 위에서도 세워질 수 없다. 문화란 오히려 땅을 정복해야한다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 위에서만 세워져야한다.<sup>27)</sup>

여기에서 일반 문화명령이 일반 은총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스킨더는 그의 저서 끝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죄나 은총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해서 문화가 순수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가 신학적으로 중립적 위치가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분명한 종교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 문

25) *Ibid.*, 55.

26) *Ibid.*, 60.

27) Cornelius Van Til, *Common Grace and Gospel*, 24.



화활동의 토대를 형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타락 전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적극적 문화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죄가 된다.

반면 카이퍼에 의하면 일반 은총 때문에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스킨더에 따르면 불신자의 문화활동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의 차이는 확실하다. 그들은 양극단을 대표하고 있다. 카이퍼는 일반 은총이 문화의 기반이라 한 반면, 스킨더는 일반 은총은 문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였다. 이 두 사람 모두 서로 다른 오류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밝혀야 한다.

카이퍼는 문화와 관련지어 설명한 성경적 자료의 기본원리에 관하여 지나칠 정도로 깊게 생각한 반면, 스킨더는 이러한 성경적 자료가 문화활동과 갖는 상관성을 모두 부인해 버렸다.<sup>28)</sup>

독자들은 카이퍼가 근본적으로 일반 은총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카이퍼가 일반 은총을 문화의 유일한 토대로 상정하였을 때 그는 성경에서 얻어진 증언을 따라 그의 논의를 전개시키기보다는 그의 교리에 더욱 충실하였다.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이 조릴 짓던 그날에 세상이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야 했다던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육적 혹은 영적으로 즉각적으로 죽어야만 했다는 구절을 읽지 못하였다. 형이상학적 현상 유지를 위한다면 일반 은총이 필요하지 않다.<sup>29)</sup>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에 대한 신학적 위험성은 일반 은총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화활동은 일반 은총에 맡겨지고 구속활동은 그리스도의 특별 은총에 맡겨지는 이런 현

---

28) Henry Van Til, 233.

29) Adam Persenaire, "Review: General Revelation and Common Grace," *Torch and Trumpet* (December-January 1953-54): 3.

상은 심각한 이원론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은총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관계가 없는 어떠한 목적도 갖고있지 않다.<sup>30)</sup> 그러므로 일반 은총을 기독교인 문화활동의 기본 원리로 삼는 것은 신학적으로 부적절하다.

1924년 미국 개혁교회 (CRC) 카라마주 (Kalamazoo) 대회에서 일반 은총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려하였다. 이것을 가리켜 “삼대 선언 (The Three Points)이라 한다.

(1)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아닌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에 관하여.... 택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의 피조계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2) 개인의 생활과 죄의 억제에 관하여... 죄에 대한 억제가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3) 선택권 밖의 사람들의 행하는 선행에 관하여... 범죄한 사람이 구원과 관련된 선행은 행할 수 없으나 사회적 공공의 선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sup>31)</sup>

상기 선언문은 카이퍼가 한 실수를 피하기에는 세심한 주의가 결여되었다할지라도 스킨더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하였다. 다니엘 즈비어 (Daniel Zwier)는 스킨더에게 그가 이러한 세가지 항목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스킨더는 첫 번째 항목에만 동의를 표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세 항목 모두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세 항목에 대한 스킨더의 자세한 비평은 1939년 5월 19일부터 8월 18일 까지 “개혁지 (De Reformatie)”에 기고한 글에서 읽을 수 있다. 스킨더가 회의 보고서에 인용된 성경구절을 재해석할 때 그 자신의 논증이 무너졌다 (시145:9, 마5:44-45, 행14:16-17, 딤후전 4:10). 그의 대답은 사색적이고 성경 주석의 의존도가 상당히 약하

30) Henry Van Til, 237.

31) *Ibid.*, 230.

였다. 헨리 반틸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화 존재이유로서 일반 은총에 관한 카이퍼의 고찰은 성경을 넘어 버리고, 스킨더는 죄인들의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극단 사이에는 중용이 있어야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칼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추론하는 것을 흑사병처럼 혐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권고를 정중히 그의 주석에서 설명하였다.<sup>32)</sup>

성경은 인간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소원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잠재력을 갖고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으로 남아있다고 말한다.<sup>33)</sup> 이는 인간 생존의 몇몇 영역에서는 인간이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칼빈은 자연계의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의 여지가 있는데, 그러한 은총은 죄를 정결케 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sup>34)</sup>고 하였다. 코넬리우스 반틸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은 영성한 가치를 자르지만 뿌리까지 치유하지는 않는다<sup>35)</sup>고 하였다. 존 머레이는 일반 은총에 관한 글에서 일반 은총을 비록 구속에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이 가치 없고 저주받은 세상이 하나님의 품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와 정도의 은총이라고 정의하였다.<sup>36)</sup> 그는 계속된 논의에서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악을 제한하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그는 일반 은총의 긍정적면 즉 창조, 타락한 인간들이 행하는 선, 시민 정부의 기능

32) *Ibid.*, 235.

33) J. M. Spier,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New Jersey: Craig Press, 1973), 124-130.

34) Calvin, *Inst.*, 292.

35) Van Til, *Common Grace and the Gospel*, 16.

36)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2.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96.

등이 그것들이다.<sup>37)</sup> 하지만 머레이는 일반 은총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한다.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의 영역을 규정하여 주었고,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의 이론적 근거를 부여해 준다.<sup>38)</sup> 헨리 반틸은 그의 칼빈주의 문화관에서 일반 은총이란 원래 불신자들을 위해 작용한다고 하였다. “일반 (Common)”이란 개념은 양적인 용법과 질적인 용법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가 말하는 보편이란 후자를 의미한다.<sup>39)</sup>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억제하시는 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편애 없이 모든 인간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듯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다 (빌4:19). 하나님의 은혜는 택자나 불택자에게 동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죄인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기독교인의 문화적 책임에 관한 카이퍼와 스킨더 견해의 종합은 이러한 가정들을 포함할 것이다. 스킨더에게서 일반 창조 문화 명령이 모든 문화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부분이며, 동시에 믿는 자나 믿지않는 자들에게서도 그렇다. 일반 은총은 카이퍼가 주장한 것만큼 신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죄악 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선한 행위와 문화 발전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발전은 인간적 편견에 뿌리를 두고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지지 않는다. 특별 은총은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고, 인간의 문화적 책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순종하도

---

37) *Ibid.*, 97-112.

38) *Ibid.*, 116.

39) Henry Van Til, 232.



96 총신대 논총 / 박희석

록 해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문화활동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분명한 목적을 얻게되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가능성을 얻게되며, 성경 원리들에 의해 인도함을 받게된다. 이러한 관점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반 은총을 분리시키지 않고서도 결론을 성경과 일치할 수 있게 해준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